

## 다니엘 40 강

다니엘서 10 장 12 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닫고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네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이제 내가 훗날들에 네 백성에게 닥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왔노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동안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그러한 말들을 했을때 나는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병어리처럼 되었던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 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수 있으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사람의 모습같은 이가 다시 와서 나를 어루만져 내게 힘을 돋우며 주며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두려워 말라. 네게 평강이 있으라. 강건하라. 정녕 강건하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내 주께서 내게 힘을 돋우어 주셨으니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 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하늘에도 페르시아라는 정사가 있다는것. 이땅에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정사가 있다는것. 사도바울은 그걸 깨닫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다. 이들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땅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됐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 때문에 21 일 동안 더디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 편이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물론 이기죠? 약간 방해를 받죠? 사단은 아직까지도 심판을 받았지만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사단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 되면 미카엘 군대에게 이기지 못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러나 이땅으로 내어 쫓기기 전에는 공중에 있습니다. 우주,

이층천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를 사단의 권세들이 누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핍박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밖에 못하죠? 기도는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수 있는데 이사야서 24 장 19 절부터 24 절까지 보겠습니다.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도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곳의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거는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때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 자 21 절 보니까 **[그 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멸하시리라.]** 하늘에 군대가 있죠? 높은 자들의 군대. 이게 바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그것과 땅의 있는 왕들을 멸하셨다. 그들의 능력을 받아서 이땅을 통치하는 왕들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이 누구니까? 지상에 있는 높은 자들을 얘기하는게 아니죠? 그들은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의 머리위에 저 하늘에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존재 결국 통치하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부리는 통치자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에스겔 28 장에서 이미 봤어요. **[두로를 대적하여 말하라.]** 두로왕에 대해서 너는 기름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죠? 두로왕이 어떻게 기름부음 받은 덮는 그룹입니까? 두로왕은 이땅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너에게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이땅에 있는 두로왕이 아니죠? 또 그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두로왕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사탄이 있었죠. 그래서 **[두로왕에게 애가를 지어 말하라.]** 곡하라 이런 애기죠? 왜? 두로왕이 이제 망할 때가 됐다 이런 애기죠. 그러므로 두로왕은 바로 마귀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죠? 마귀가 능력을 줬죠? 그 당시에 두로라는 왕에게 능력을 줬죠.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지만 실지로 그 안에 사탄이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두로왕을 가지고 기름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완전한 규모와 총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배우면서 이미 알았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만 조종하는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들을 같은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죠? 세상은 그대로 두고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영적인 자기 군대들에게 명해 가지고 빨리 막아라 빨리 막아라 합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내려 올 때에 마귀가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그 정사들 권세들에게 빨리 막아라. 그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던 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의 기도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 기도가 응답이 안되는구나. 우리에게 낙심시킵니다. 다니엘은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려온 가브리엘이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를 21 일 동안을 가로막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볼 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기도하고 나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잊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도 하나님이 갓다 주세요 나중에. 그제서야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그런다고요. 이렇게 되면 안되죠? 어린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잘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먹으로 싸울 거야 총으로 싸울거야? 우리는 기도로 싸우죠? 입으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미리 보면서 리조이스(rejoice)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 기도한 것이 응답된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막 우리를 공박을 하고 말도 못할 일이 벌어지죠. 몸도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전도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귀의 자식들을 뺏어 가니까 전도자들에게는 그 전도자의 자식들을 쳐버려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아 전도를 많이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문제 있는것 아냐? 시험에 든다고요. 이걸 보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꼭차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게 되고 모욕을 받고 궁핍하고 박해받고 곤경에 처할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아 응답이 곧 오겠구나. 이렇게 기뻐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 가지고 능히 피하게 한다가 그 얘기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은 적이 없다. 감당할 수 없을때 되면 하나님이 빨리 조치를 취해 가지고, 마귀가 먼저 방해하죠?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럴때 하나님의 군대들이 결국 그를 막아서 응답이 내려오게 한다.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한국까지

포함해서 지상의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마귀가 통치하는데 그 마귀의 통치를 하나님이 허락 했어요. 왜? 죄때문에 아담이 이땅을 뺏겼죠? 그래서 마귀가 내려와 가지고 이땅은 나에게 넘겨준거야. 이걸 내꺼거든. 그런데 주님이 아무말도 안했어요. 속으로 그러셨겠죠? 그래 알아. 그러나 내가 이제 너를 심판하고 뺏을 거다.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control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세상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거죠. 물론 예수님께선 마귀의 방해할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미카엘의 도움을 받아서 방해를 물리치셨다. 그래서 21 일 걸렸다고 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죠?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미카엘이 와서 싸우죠. 세상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나가서 싸우나요? 왕이 나가서 싸우나요? 딱 앉아있고 대장들을 보내 가지고 명령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령관이예요. 사령관이 혼자 나가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요? 물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면 세상의 군대조직도 영적인 군대 조직을 모방한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를 좀 갔다 와야되요. 이스라엘은 남녀 다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옵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명령 계통을 알아요. 자기보다 조금 어리더라도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통령에게 대드는거나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명령 계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쭉욱 내려가잖아요. 그러기때문에 가정에서도 명령 계통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예요. 교회에서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죠?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고 자기보다 영적으로 서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들고 그러잖아요. 그건 누구에게 대드는 거죠? 주님께 대드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 가지고 매를 맞는다. 이런 얘기죠. 주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실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마귀의 일들을 진멸하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영적 능력에 관한 한 마귀의 능력과 권세가 정말 엄청났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안에 계시잖아요. 사도요한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 때는 성령이 있었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약하니까 전쟁할 수 없었죠. 그러나 지금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이길 수 있죠. 능히 이길 수 있지만 때로는 상처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러나 능히 일어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일곱번 넘어져도 여덟번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말이죠 마귀가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져서 얼마 동안 하나님을 떠날수 있지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요. 저도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20년을 헤맸잖아요. 이걸볼 때 마귀가 그렇게 하는거예요. 대학교에 가니까 도저히 세상을 못이기겠더라고요. 그저 학교에 공부만 하고 왔다갔다 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못이기겠더라고. 성령이 안에 없으니까.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다 당하게 되있어요. 물론 당해도 주님이 구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말이죠. 전투를 하다가 상처를 입고 부상당하면 그만큼 힘들잖아요? 후송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짧은 시간을 그런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에 각오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는 순간에 마귀는 벌써 비상 경계령을 내린다고요.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게. 이걸 모르고 그냥 기도만 많이하면 되는 줄 아는데. 각오를 하고 기도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받은줄 알라. 의심하지 말고. 누가 의심을 주죠? 마귀는 첫째로 의심을 줍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마귀가 손으로 우릴 때리겠습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기도 실컷해놓고 결국 의심하다가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고 느지막하게 가서 응답받는 그런 경우가 있죠. 16 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라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같이 생긴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지니]** 주님이죠? **[내가 내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 내주여, 그 환상으로 인하여 내 슬픔이 내게 임하여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때 아주 충격이 생긴거죠.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 장면을 사도요한에게 다 보여 줬잖아요? 거기 절대 넘어가면 안되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요. 그들은 거기에 넘어가요. 또 교회다니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부터 기도해야 되요. 몰라서 그래요. 내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기 시작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고는 베길수 없는 불같은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무슨 종말론 종말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어 보면 전도하지 않고는 베길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사람이죠? 환상이라는 것은 앞에 8,9 장에서 봤던 환상이죠? 이스라엘에 닥칠 마지막 한이레. 뿐만 아니라 483 년동안 69 이레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고 고난 받을 것을 미리 봤잖아요. 끔찍한 환상. 그런데 이것을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앞에 계신다는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병어리처럼 몸을 가누지 못했죠. 사도요한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보여 주셨죠. 사도요한을 성령 안에서 미래로 옮겼죠. 미래로 옮겨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 준거죠. 본 것을 증거한 거예요. 보지 않고는 증거할 수 없죠. 그래서 17 절에 보니까 **[나로 말하면 내 안에 힘이 다 없어졌고 내 안에 호흡도 남아있지 않으니 내 주의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였더라.]**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UFO 에서 외계인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지 가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은 얘길해요. 힘이 쭉 빠지고 꿈쩍을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만 확실한게 아니니까 그렇다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분 영적인 존재를 만나니까 그냥 힘이 쭉 빠진거죠. 우리 육신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 19 절 보니까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 말라. 네게 평강이 있으라.]** 주님은 이렇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했고 평강이 있으라. 하나님 만나면 그렇죠. 꿈쩍을 못하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가지고 벌벌 떨었죠?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잘못하면 이제 붙잡혀 가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면 다 붙잡혀 죽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있었죠. 그런데 문을 잠궜는데 주님이 문을 열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모두 평안하뇨?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요한에게도 그랬죠?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을 하니까 19 절에 **[그가 내게 말했을 때 내가 힘을 얻고 말하기를]**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힘을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이 주님 말씀 아네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강건하라. 그러면 어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밀아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힘이 나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뤄지잖아요.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이것부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었고 창공도 생겼죠? 창공 사이에도 물과 물이 나뉘어 진것도 말씀하니까 생겼죠?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생겨나라 그러니까 그냥 생겨났죠? 별들이 있으라 그러니까 수억만개의 별들이 그냥 생겼죠?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다윗이 그랬죠. 수십억개의

은하수가 생겼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몰라요. 이름을 부르며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올라가요. 안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올라가야 되요. 세상아 잘있거라 나는 간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올라가 있어요. 내가 안올라 간다고 못올라가는거 아녜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우리는 살아 있으면 그냥 변해가지고 올라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예수 안믿고 교회 안다니는 사람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순간적으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5 장 보면. 우리가 눈을 깜짝하는 사이에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사이언스 픽처를 만들때 어떤 사람이 서있는데 스르륵 없어지면서 저쪽에 탁 나타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픽션이라고 가짜라고 그러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거죠. 이리올라 오라 그럴 때 어떤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도 올라가야 되요. 올라가서 우리는 울어요. 휴거되서 하늘에서 엄청나게 울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환란때 밥도 못먹고 이리 저리 쫓기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목이 찢려 죽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엄청나게 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 장에 보면 눈물을 씻어준다 그얘기예요. 그다음에 영원 세계에 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올 때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20 절 보니까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주님이 오실때 가브리엘이 주님 대신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은 주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죠? 아 감히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그랬잖아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싸워 가지고 그리스의 알렉산더를 세우겠다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가 망한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뭐라고 안그랬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그랬기 때문에 지상의 페르시아가 망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전쟁을 해서 그랬다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사람을 일으켜 가지고 엄청난 페르시아를 망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거예요. 이스라엘도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겼고 함께 안하면 패배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지상의 통치자의 보좌에 앉아있는 고레스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땅의 고레스왕 정도라면 주님이 싸우러 간다고 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죽을텐데. 그러나 영적인 전쟁, 우리 위해서 하시죠. 우리가 이미 봤지만 주의 천사가 밤 사이에 앗시리아 군대 18 만 5 천명을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사단의 군대들이 물리적으로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들도 천사들이거든요. 범죄한 천사가 1/3 이야. 아직까지도 그들은 공중에 자리잡고 있어요. 때가 안되서. 대한란 때 그들이 쫓겨 내려오면,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요. 마귀가 내려오면 주님 막는 자가 손을 놔버려요. 성령께서 올라가시니까. 그럼 뭐 완전히 이땅은 마귀의 소굴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환란 때로 넘어가면 안되겠죠. 헤롯이 연설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았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안들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까 벌레들이 그를 먹으니 그가 숨을 거두더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스타워즈란 영화 있었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 그런식으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걸 우리가 항상 머리에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두드려서 우리를 낙심시키는데 그저 감사하게, 우리가 여러가지 낙심을당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감사하고 가만히 있어요. 파라오 군대들이 홍해에서 따라 오는데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되는걸 너희가 알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싸울거예요? 우리는 안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와 대적하잖아요? 싸우면 안되요. 사단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육신적으로 안되요. 말로도 쳐요. 우리는 그저 입을 꼭 다물고 감사하게 유구무언(有口無言)이 되야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싸우다가 낭패를 당하는 걸 많이 보죠? 이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불가피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싸우지 않다가 당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굼벵이가 아니라 군사들이. 우리는 지상에서 육신 안의 삶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요. 21 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네게 보여 주리라.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너희 통치자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통치자는 미카엘이란 말예요. 군대 장관이죠.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11 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있을 일이 또 나오죠. 진리의 성경에 기록된것. 하늘에 성경이라 불리는 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가 있죠. 그 당시에 지상의 성경이라하면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역대기 상하라던가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은 당시에는 없었죠. 분명히 하늘에 성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평생 처음으로 들어보는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읽지 못했던 내용이 앞으로 전개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 보여 주시려고 오셨죠. 물론 나중에 요한에게도 오셨죠. 이러한 일들에 나를 지지해 줄 자는 미카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지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 천사장 미키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무엇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주님의 임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또 영적인 전쟁을 하다보면 연약한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보살펴 주고. 전쟁에 나가더라도 누가 부상당하면 부상 당하지 않은 사람이 끌어 주면서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교회가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합니다. 함께 갈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또 남을 가르쳐야 되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터지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터져도 이이고 죽겠네 하고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군사들이 되어 가지고 곳곳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그저 감사해야 되요. 이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고 우리가 이땅에서 무릎 꿇을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감사하며 있을 때 마침내 응답이 내려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을 볼때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영적으로 자지않고 드러눕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귀의 술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